

캐터필라 리맨 교환 프로그램

캐터필라의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과 엄격한 품질 테스트를 통하여 신제품과 동일한 성능의 리맨 제품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리맨 공급 품목

- 1,000 여 종의 엔진, 동력전달장치, 유압 구성품 및 날개 부품

리맨 특징 및 이점

- 신제품과 동일한 품질과 성능
- 신제품과 동일한 하자보증
- 신제품과 동일한 공급
- 저렴한 가격 (신제품 대비 80~25%)
- 장비 운휴시간 최소화



헤인

2002 | W I N T E R



2002년 겨울호(통권 238호)| 2002년 12월 23일 발행| 1993년 10월 20일 등록(등록번호바-2006호)| 발행 겸 편집인 원경희 발행처 주식회사 헤인(www.haein.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92-6 헤인빌딩(02-3498-4500) 기획 및 디자인 편집디자인실의락(02-2269-1247) 인쇄 대로인쇄(02-2278-0773)



주식회사 헤인
www.haein.com

본사: (02)3498-4500 또는 전국각지점/고객불만접수080-022-5775
 원안고객지원센터(041) 559-1500 펄백창고(031)667-2066/9 양산창고(055)385-9668
 서울영업본부 (02)3498-4541/8 경기북부영업소 (031)826-0966/8 영동포영업소 (02)2636-2891/3 부산영업본부 (051)517-7060
 /935-0500 전주영업소(055)755-9669 인천지점(032)761-0564/6 동해지점(033)522-5211 광주지점(062)526-3895/7
 제천지점(043)643-3307/644-3307 전주지점(063)245-1777/8 대구지점(053)521-8072/5 대전지점(042)531-6518/9

www.haein.com



04 가 -
06 - 人 "樂"
08 + -
10 -
12 - 가 ?

일맛 나는 직장
살맛 나는 셀러리맨

쟁하고 해뜰 날

“쟁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쟁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우리의 호프 장과장님은 오늘도 음정박자를 무시하고 음치의 진면목을 보여주었다. 만년과장이라는 타이틀을 통련하면서도 부하 직원들에게는 존경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나의 가엾은 직장상사. 이번 인사에서는 우리 모두 과장님의 부장 승진을 당연히 기대했지만, 과장님보다 10년이나 연하인 30대 초반의 미소가 스카우트되어 딱 하니 그 회전의자에 다리를 꼬고 앉

는게 아닌가.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지면서 철저하게 능력 위주로 로봇적인 변신을 해버린 우리 회사. 그래도 그동안 인사에서 만큼은 내부 승진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생존경쟁의 본보기라는 듯 전격적으로 외부인을 영입해온 것이다.

그동안 부하 직원들이 업무에서 실수를 하면 큰형님처럼 바람막이를 해주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던 과장님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축 처진 어깨로 노래방을 나온 과장님은 택시를 잡고 차문을 열고 서있는 나의 어깨를 두 번 치며 변함없는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성대리, 하는 일의 보수가 많고 적은 것을 너무 가리지 말아. 수입이 많은 확고한 자리에 오른다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런 자리가 오지는 않아. 지금 내가 한 말은 러셀이라는 서양 양반이 남긴 명언일세... 사실 이런 명언보다는 전문지식을 더 잘 알고 있는 게 대접받는 요즘 시대이긴 하지만....”

그랬다. 우리의 과장님은 사표를 낼 거라는 타 부서원들의 예상과는 달리 다음 날부터 어린 상사를 공주 모시듯이 하면서 우리들에게도 변함없는 큰형님 노릇을 해주었다. 방금 전까지도 어린 부장한테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 고양이 앞의 생쥐잡이 되었던 우리의 과장님...

“과장님, 부장님이 너무 칸칸하고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죠?”

“성대리,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얻으려 하고, 굳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풍부한 사람은 자기 소득에 만족을 느끼는 사람이야. 탈무드에 나와있는 명언일세...나는 내 그릇을 알기에 풍부한 사람으로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을 한단네. 하지만 성대리는 굳센 사람도 되고 현명한 사람도 되게. 못나고 무능한 이 만년과장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이 많지. 그 점은 내가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네.”

“과장님...”

“나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제대로 직시하지 못했네. 오직 실력만으로 평가받고 대우받는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풍부한 사람으로 만족하다보니 만년과장이 된 거네. 그러니 자네는 오늘 부터라도 자기계발을 게을리 하지 말게나. 허허허.”

그리고 어느새 1년이 흘렀다. 오래란 부장은 회전의자에 앉은 지 1년 만에 매출이 전년대비 60퍼센트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오부장이 이사가 될 날도 멀지 않아 보였다. 그 일년동안 나는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과장님을 위해서라도 더욱 열심히 일했다. 모든 공을 부하직원들에게 돌리고, 우리들의 조그만 과오조차도 온몸으로 받아내는 과장님을 쓸쓸하게 떠나보내고 싶지 않았다. 우리 부서는 정말 한가죽처럼 똘똘 뭉쳐서 일을 한 것이다. 나는 며칠전 술자리에서 만약 이번 인사에서 과장님을 한직으로 내몰아서 자진 사직을 유도하면 회사를 때려치겠다고까지 공언했을 정도였다. 술이 깨고 나서

는 은근히 후회를 하긴 했지만, 그만큼 과장님은 급성장세의 숨은 공로자고, 우리들의 영원한 큰형님인 것이다. 아무리 오부장의 실력이 뛰어나다 해도 인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한 장군이 공을 세워 출세하는 이면에는 수많은 무명용사들의 희생이 따른다고 조송(曹松)이라는 분이 명언을 남기셨지. 나는 무명용사로 만족한다네.... 자네들도 1년동안 고생이 많았네. 회사에서 내가 필요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털웃음 한번 날리고 책상을 정리하면 그만인 게지.”

과장님은 명단이 발표되기 전날, 우리에게 회식을 시켜주면서 변함없는 미소를 짓는 것이었다. 그런데 출근하자마자 발표된 명단을 본 순간, 내 눈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과장님이 부장으로 승진하고 오래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다.

하루종일 사내가 술렁였고, 퇴근 무렵이 되어서 경영진과 함께 사무실에 나타난 오래란은 연신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1년 전, 경영진은 컨설팅 전문가인 오래란과 1년 계약을 맺고 인화가 뛰어난 과장님에게 전문지식과 노하우 등을 모두 전수해 주고 비로소 부장으로 승진시킨 것이다. 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재물을 당장에 이익이 안된다고 해서 내칠 수 없다는 게 경영진의 참뜻이었던 것이다.

“쟁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안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쟁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푸짐한 성과금을 받은 우리는 과장님과 어깨동무를 하면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 제꼈다. 술이 취한 나는 노래를 따라부르다가 동료들이 폭소를 터뜨리는 말든 어린아이처럼 만세를 불렀다.

“과장님 만세!! 아니 이제는 부장님이시지. 부장님 만세!! 우리 회사 만세!!”

글 _이승영(후러작가)

헤인 사람들이 말하는 樂

“아내가 생겼어요”



영등포영업소 부품영업 김수열 대리

헤인 근무 8년째, 부품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열 대리는 요즘 한창 기승을 부리는 독감에 걸려 고생 중이었다.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영업 일이 좋다는 그. 딱 한 사람을 지목하지 못할 정도로 함께 일하는 모든 동료들이 자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했다.

사람 좋아하는 그는, 일로써 고객을 만나지만 ‘만남’ 자체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품을 하나 더 팔겠다는 생각에 앞서 고객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의 사업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영업사원이 되길 바란다.

또한 장비에 문의한인 고객에게 장비에 관한 정보를 줄 수 있어 행복하단다. 김수열 대리의 도움으로 고객의 일이 잘 해결되었을 때, 고객과 함께 먹었던 ‘자장면’ 한 그릇은 그 어떤 자장면보다 맛있었다고.

김수열 대리에게 올 한해 동안의 가장 큰 즐거움을 묻는다면 단연 외로운 술로를 청산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 그는 유부남이 되었다.

교회에서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에 이른 하나님ی 맺어주신 인연이다.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보듬어주고 그의 일을 이해해주는 아내를 얻은 것이 더없이 행복하다. 매달 열심히 일해서 받는 월급으로 어엿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 뿌듯하단다.

“떡두꺼비 같은 딸”



엔진사업본부 육상엔진팀 박동운 대리

2001년, 헤인 본사의 부름을 받고 부산을 훌쩍 떠나 낯선 타향땅에 자리잡은 경상도 사나이가 있다. 사람 좋은 인상에 웃으면 눈이 보일락말락한 그는 육상엔진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동운 대리. 6년 동안 서비스트에서 일해오다 올해 초 엔진영업을 막 시작했으니, 영업 분야에서는 아직 신참격.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발전기 영업 판매에 성공, 화려한 축포를 울렸다.

얼마 전에는 전기설계 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준비를 위해 며칠간 밤샘 작업도 하는 등 일하는 재미를 붙였다. 비록 많은 설계 사무소가 참여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세미나였지만 소중한 경험이었다.

의지할 친구 하나 없는 서울에서의 회사생활, 힘들 때마다 그를 격려해주었던 김형태 선배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뱃살은 선배님이 사주신 술에서 비롯된 살이라나. 박동운 대리의 말에 따르면 젊은 날의 그는 ‘산을 날라다녔을’ 정도라고 한다. 대학 시절, 혼자 떠나는 산행을 즐겼던 박동운 대리는 산이 너무 좋아 부모님께 산행을 허락받기 위해 며칠 동안 앓아 누웠던 적도 있다. 토끼 같은 마누라와 더불어 지난 4월에 태어난 ‘떡두꺼비’ 같은 딸의 재롱에 요즘 박동운 대리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새콤달콤하단다.

일만큼 중요한 놀이

1.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유교적인 분위기에서 비롯된 엄숙함, 그리고 60년대 개발시대에 저임금 장기근무의 정당화를 피하기 위해, “오락”이라는 단어를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간주했다. “놀다”에서 연유된 순수 우리말인 “놀이”도 우리가 신성시하고 숭상하는 “일하다”의 반대개념이기 때문에 피해야 할 단어처럼 여겼다. 그리고 놀이라는 말을 영어단어로 대체해 쓰게 되었는데, 게임, 엔터테인먼트, 플레이,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이 이런 말들이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이전보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자

국방부에서는 훈련 대신 위게임(War Game)을 채택했다. 실제, 미래전쟁의 모습은 인터넷게임과 흡사해 미래에는 육박전 잘하는 근육질 군인보다 프로그래머가 오히려 훌륭한 군인으로 활약하게 될 지도 모른다. 증편투자를 증편게임처럼 즐기고 있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 재미 투자자들이 즐겨 이용하는 데이트레이딩 분야는 미국 다음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듯 놀이는 생활과 재회득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발전해 이제 놀이와 일을 구분 짓던 경계선 자체가 모호해졌다.

종래의 룰 살롱, 화투, 카마레 같은 음성적인 놀이문화는 놀이동산, 인터넷 게임, 댄스스포츠 등으로 변화했으며 양성적인 놀이문화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현재는 하나의 과도기이다. 친구세대, 경영자와 고용인, 정신노동자와 육체노동자, 부모와 자녀, 남과 여 등 각각의 입장에 따라 놀이에 관한 상반된 관점이 공존하고 있다. 시대는 차츰 놀이를 긍정하는 입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2. 놀이문화의 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준 요인은 인터넷 고속망의 보급이다. 우리나라의 통신망 보급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수만 개의 PC방은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접점에서 이루어지던 놀이가 사이버 세계 속에서도 가능해졌다.

온라인교육기관이나 사이버대학에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할 때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하면 교육을 놀이처럼 즐기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란다. 소위 에듀테인먼트(Eduainment) 개념의 도입이 회원이나 학생 모집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얼마전 대학입시 엑스포장에 갔더니, 학생들이 그곳에서 받은 홍보물 중 씨디 자료만 빼고 모두 다 쓰레기통에 던져 버리는 것이었다. 물론 그 씨디도 ‘재미’가 없다면 바로 버려질 것이다.

리니지라는 게임을 만들어 유명해진 코스닥 상장회사, ‘엔씨소프트’는 수천 억원에 달하는 게임 소프트웨어 수출로 대통령 표창까지 받은 국가산업발전의 중요한 공신이다. 놀이산업이 당당히 우리 산업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피씨방에서 죽자살자 게임과 씨름하던 청소년들이 프로그래머로 큰 연봉을 받으며, 게임전문 방송에 출연하여 텔런트처럼 활약하고 있는 것도 현대의 모습이다.

3. 놀이는 사회화(Socialization)에 기여한다. 특히 어린이들은 놀이를 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EQ(감성지수)를 키운다. 놀이는 체력 발달에도 크게 기여하는데, 운동놀이는 성장기의 신체 발달에 필수적이다. 최근에 아마존닷컴을 통해 판매를 시작한 ‘세그웨이(Segway)’라는 킥보드 모양의 탈 것은 균형감각과 반사력을 키우는 성인용 놀이 도구이다. 또한 놀이는 지능발달에도 기여한다. 스포츠를 통해 게임의 법칙을 익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어놀이, 발명놀이, 놀이학습 등은 교육현장에서 항상 응용된다. 놀이는 꿈을 키워준다. 놀이를 통해 발명가가 되기도 하고 병원놀이를 하면서 미래의 의사가 되어보기도 한다. 놀이는 놀이산업을 발전시킨다. 라스베이거스의 수입은 네바다주를 존재하게 하는 주요 수입원이며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한다.

4. 놀이의 본질은 휴식과 즐거움이다. 휴식과 즐거움을 주지 않는 놀이는 생성되지도 전승되지도 않는다. 휴식은 아무것도 안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주말에 격렬하게 테니스를 즐긴 직장인이 월요일에 출근해서 “자알 쉬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말 내내 특별한 놀이를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빈둥대며 보낸 직장인들은, 일할 기분이 안 날 정도로 일주일 내내 찌뿌둥하다고 말한다. 어느 기자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여행하다가 길가에서 포크댄스를 추는 사람들을 보고 ‘아름답고 부러운 문화’라고 칭찬하는 글을 썼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춤추는 아줌마와 노인들을 보고 반성해야 할 ‘꼴불견’이라고 비난한다. 나는 관광지에서 노래 부르고 춤 추시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낀다. 그리고 “잘 노는 사람이, 일도 잘 한다”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놀이문화를 활성화시켜 국민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는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이 아쉽다.

글 김세준(마케팅 컨설턴트,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외래교수)



맛있는 겨울 만들기

매일 한 번은 찾아오는 점심 시간, '무얼 먹을까'는 행복하고도 성가신 고민이다.
일상의 틀에 발목 잡힌 채 일탈이 허용되는 한정된 시간 안에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유는 그만큼 짧아진다.
고민은 짧게, 주어진 자유는 깊고 진하게 음미하자.

매서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날은 우선 '잘 먹어야' 한다. 맛있는 것으로 속을 든든하게 채워야 겨울바람에 날아가지 않게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둘 수 있기 때문이다. 눈 앞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전골이나 달아오른 불판에서 지글지글 익고 있는 구이요리를 푸짐하게 먹자.

닭곰탕, 닭갈비, 막국수 전문 <참나무 숲불에 닭이 만나는 순간> 02-572-6616
연남중학교와 사초우체국 사이, 영동동협 횡길로 약 3백미터 저점 좌측/ 4천원
샤브샤브 전문점 <진상(서초점)> 02-581-0092~3
강남대로변 뱅뱅사거리 못 미쳐 육교 앞/ 8천8백원

사각사각 눈이 온다면

눈 오는 거리는 유혹적이다. 휴일엔 이 유혹에 넘어가면 그만이지만 일 하던 중간의 점심 시간 1시간으로는 괜히 마음만 어지럽다. 이런 날 밖에 나가 북잡한 식당에서 우중충한 모습으로 구겨 앉아 있다가는 마음만 더 심란해질 뿐. 그렇다고 근사한 레스토랑에 가서 느긋하게 앉아 있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다. 다같이 모여 앉아 사다리를 타자. 두 명쯤 술래를 뽑아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점심 도시락을 사오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따뜻한 보리차라도 마시며 창밖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며 기다리자.

심부름 가는 사람들은 눈발이 휘날리는 겨울 거리를 마치 영화,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이라도 된 듯 내리는 눈을 그대로 맞으며 걷자. 기왕이면 이국적인 분위기의 집을 찾자. 포장된 도시락을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뉴욕 밋생이가 된 것 같은 착각을 선물하는 뉴욕스타일의 중식 테이크아웃 전문점을 추천한다. 식사를 끝낸 후 다함께 둘러앉아 포춘(Fortune) 쿠키에서 운세를 읽는 즐거움도 보너스. 퇴근 후에도 눈발이 멈추지 않는다면 북어전문점을 찾아 따끈한 히레사케 한 잔으로 눈 내리는 밤을 노래하거나,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의 폭신한 소파에 기대앉아 하얀 눈을 음미하자.

아메리칸차이니스 푸드 <차이니스투고> 02-536-1001
강남역 뉴욕제과 위쪽 바디샵 옆골목 KFC와 바자링 사이/ 5천원 이하
북어요리 전문점 <서초북전문점> 02-594-3030
법원 쪽으로 올라오다 법원 담을 끼고 왼쪽 골목안에 위치/ 1만5천원~4만5천원
대중북요리 전문점 <참복마을> 02-554-7088 삼성동/ 6천원
독일식 요리 레스토랑 <이아> 02-3463-4433
양재역 사거리 한남대교 방향 500미터쯤 현대자동차대리점 골목안 흰색건물 2층/ 5천원

Simple Lunch with a cup of tea

깊고 은은한 차의 향기에 취한 채 한 시간의 자유를 만끽하고 싶을 때는 샌드위치와 한 잔의 차, 혹은 달콤한 케이크와 한 잔의 차를 준비해둔 곳으로 가자. 독특하면서도 편안한 샌드위치 전문점 '더 바'가 예술의 전당 앞에도 문을 열었다. '샌드위치가 깊은 맛을 낼 수 있다는 것'에 신선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

'마노'는 눈으로는 엔틱 소품을, 코와 입으로는 다양한 홍차의 맛을 즐길 수 있는 공간. 식사 시간에는 샌드위치 정식과 스파게티 정식을 준비한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달콤한 케이크가 있는 집 '듀파르(02-3474-3006)'는 커피 맛도 예사롭지 않다.

샌드위치와 가벼운 식사 <더 바> 02-583-5831

서초케이بل TV 뒤편 한 달에 한 번씩 메뉴 교체

카페 <마노> 02-3486-7080

서초역 2번 출구 150미터 알파문구점 끼고 왼쪽 골목으로 25미터 들어오면 4층

대리점 건물/ 4천5백원



푸슬푸슬 비가 내리면

진하게 우러낸 국물에 졸깃졸깃하게 삶아주는 칼국수와 노릇노릇하게 지진 해물파전 한 접시면 비오는 날 점심시간은 금방 행복해질 수 있다. 기왕이면 눅눅하게 젖은 몸을 보송보송하게 말려줄 수 있는 온돌방 식당을 찾자.

예술의 전당 앞에 있는 '앵콜칼국수'는 이 컨셉트에 '딱'인 집이다. 밀치육수에 호박과 감자를 썰어 넣고 끓여주는 기본(?) 칼국수는 물론이고 해남의 별미인 메생이 칼국수, 녹두를 곁게 갈아 끓인 녹두칼국수, 구수한 팔칼국수 등 일주일 내내 칼국수만 먹어도 질리지 않을 정도.

바로 옆에 있는 '백년옥'에서 내놓는 얼큰한 순두부찌개와 바싹하게 지진 두부전도 괜찮다. 얼큰한 국밥 생각이 나는 사람들은 뱅뱅사거리에 있는 버드나 무집(02-3473-8345)을 찾아보자.

칼국수와 만두요리 <앵콜칼국수> 02-525-8418

예술의전당 삼거리 반포대교 방향/ 4천원

두부요리 전문점 <백년옥> 02-523-2860

예술의전당 삼거리 양재동 방향/ 5천원

꼭 아이가 있어야 행복하나요?

겨울 햇살이 따사로운 오후.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동네 어귀를 돌아 빠르지 않은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 대화를 주고받는 모습이 한눈에도 부부임이 틀림없을 두 사람의 얼굴엔 햇살과 함께 웃음꽃이 가득하다. 결혼을 앞두었거나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꿈꾸어보았을 것 같은, 평범하지만 보는 사람까지 행복하게 하는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은 언제나 행복을 꿈꾸고 행복의 조건들을 따지길 좋아하지만 정작 생활에 쫓겨 자신이 꿈꾸었던 행복의 실천엔 둔감해지기 마련. 특히 빌딩숲 속에서 생활하는 많은 도시인들에게 부부간 하이킹은 어쩌면 장롱 깊숙이 처박아 놓은 낡은 옷 신세 마냥 주인의 손만 기다리는 처지가 되어버린지도 모른다.



행복 추구의 또 다른 이름 ‘딩크족’

이영호(33)·강윤주(30) 부부는 요즘 새로운 풍속으로 자리잡고 있는 일명 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이다. 덩크족은 한마디로 ‘아이를 원치 않는 맞벌이 부부’. 사회적 성공과 경제적인 여유를 바라는 이들은 80년대의 여파(Yuppie) 신드롬을 잊고 있다. 배우자의 자립과 가치관을 존중하며 탁월한 국제적 감각, 노후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나가며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게 덩크족의 특징. 하지만 아직은 유교적 사상과 가부장적 사고방식이 사회의 근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덩크족은 한편으로 ‘자식을 사회생활에 있어 걸림돌 취급한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기도 하다.

“딩크족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의미 때문에 ‘딩크족’이라 불리는 것이 사실 마음에 안듭니다. 단지 또 다른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일 뿐, 우리 사회의 근간을 반대하거나 무시하는 입장이 아니니까요.”

지난해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그만두고 구조설계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남편 이씨는 IMF 때 구조조정 당하는 직장인들을 보며 소모품 취급당하는 현실이 싫어 ‘2세를 갖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물론 부인 강씨도 이씨의 의견에 이의가 없다.

밥 짓는 남편, “그래도 즐겁다”

집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아침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이씨는 부인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 신혼 때부터 직장을 그만 두기 전까지 줄곧 서로 아침을 준비하려고 싸웠었는데(?), 이제는 싸우지 않고도 해게 모니를 장악할 수 있으니 그 아니 즐거우랴. 이왕 하는 김에 돈 관리·빨래·청소 등 모든 집안 일을 이씨가 맡았다. 아주 가끔 아내가 도와준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 97년 12월 조용한 전통찻집. 이씨 친구 어머니의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첫눈에 ‘아 이 사람이구나!’라고 꽤재를 불렀단다.

“만나다 보니 공통분모가 많았어요. 뿐만 아니라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엔 부족한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난 지 4개월 만에 결혼에 골인한 거죠.”

부인 강씨의 말처럼 두 사람은 호흡이 척척 맞아 무슨 일이든 일사천리로, 결혼 6년이 다 되어가도 심각한 부부싸움 한번 없었다. 단지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일정 부분 함께 저축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쓴다’라는 규칙만 정해놓았을 뿐 별도의 생활규칙도 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의견충돌이 거의 없다는 건 상대방의 의견을 그만큼 존중한다는 반증이 아닐까.

목동에 신혼집을 차리고 제일 먼저 부부는 자전거 두 대를 샀다. 하이킹도



노후의 외로움도 우리 몫

“그동안 15번 정도의 국내여행을 함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이 남편의 고향인 강원도 정선이었어요. 남편이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도 가보고 등하교 길에 물놀이와 낚시하던 곳도 둘러보며 남편의 어린시절을 공유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지난해 갔던 파리 배낭여행은 저에게는 결혼 전 추억을, 남편에게는 선진국가의 건축문화를 견학할 수 있어서 서로에게 뜻 깊은 여행이 되었죠.”

서로를 존중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본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상대방의 집안에 행사나 축하할 일이 생기면 너무 잘하려고 오버(?)하는 통에 오히려 ‘오버하지 말라’며 말려야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니... 평범한 부부들도 다 가능한 일이겠지만 늘 같은 마음을 가진 이들이 특별하게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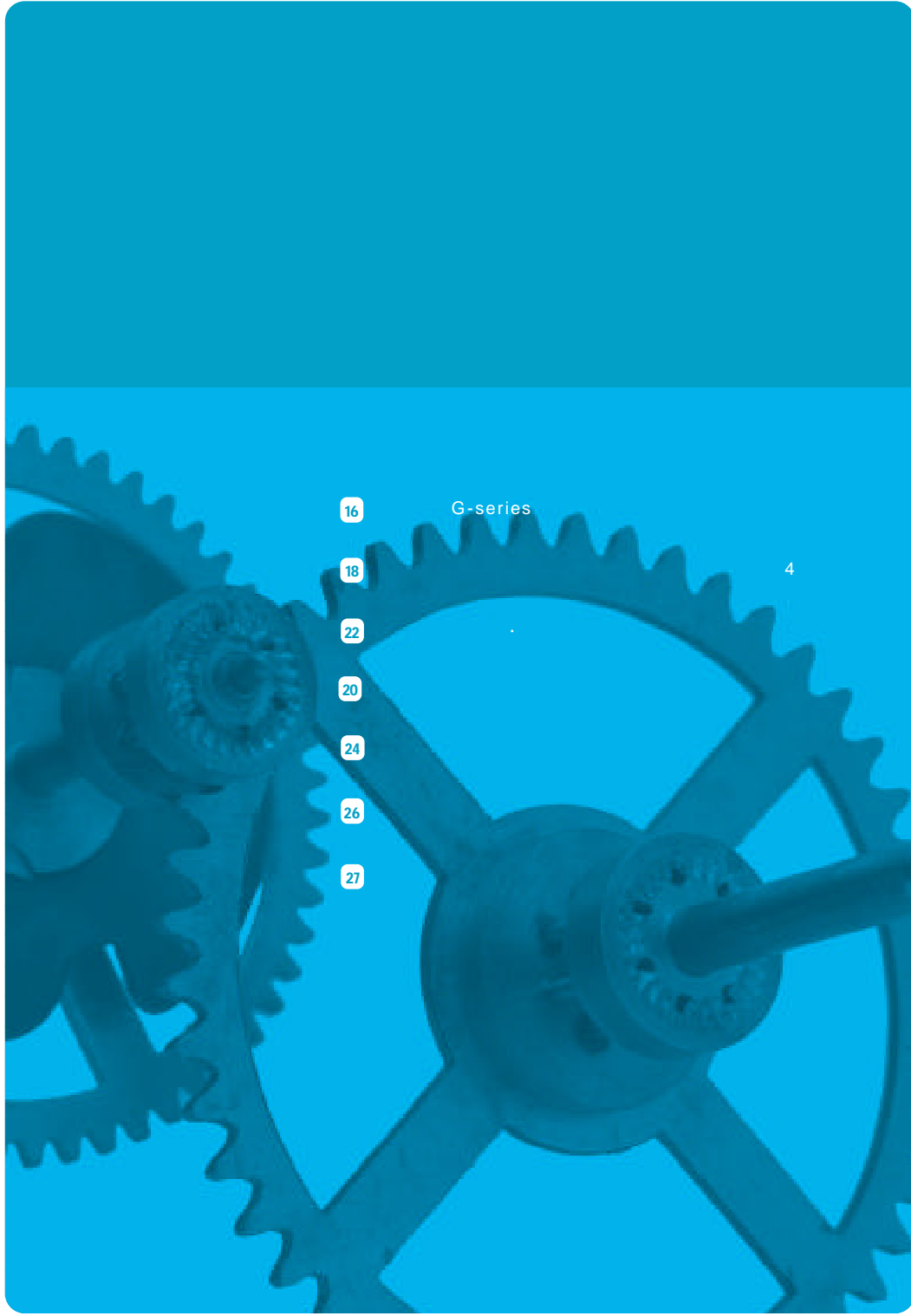
부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을 작정이다. 도시를 떠나 조용한 곳에 집을 짓고 펜션 사업을 하는 게 부부의 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자식이 없어서 겪어야 될 노년의 외로움을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극복하겠다는 또 다른 의미의 노후계획이 담겨 있다.

“우리가 행복추구의 한 방편으로 아이를 갖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면 노년에 겪어야 될 외로움 역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죠. 오히려 보통의 사람보다 삶에 대한 책임감과 애착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_강남주(자유교과 / www.inamju.co.kr)

즐기고 부부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러 가기 위해서다. 부부에게 서울 생활에서의 치는 교통체증에 시달려야 하고 유지비만 먹어대는 골칫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형영화관이 있는 구로까지 40분을 달려 영화를 본다. 주말 조조상영 시간대를 주로 이용하며 개봉작은 거의 놓치지 않는다. 오는 길에 대형마트에 들러 함께 장을 보기도 하고, 부인을 위해 이찌가 인터넷·지인(知人)·메스미디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알아놓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원정(?)을 가기도 한다.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중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둘만의 여행이다. 부부에게 여행은 새로운 만남의 장이 되기도 하고, 건문을 넓힐 수 있으며 도시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대개체이다. 또한 여행 중에 혹은 여행 후에 더 깊고 진진된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 부부는 계절마다 3박4일 정도의 여행을 계획해서 지금까지 꼬박꼬박 실천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배낭여행도 1년에 한번씩 다녀오기로 했다.



C - Series G - Series D3G, D4G, D5G

Hydrostatic Control System



D3G

52kW

XL

7,350kg

LGP

7,770kg

D4G

60kW

XL

7,800kg

LGP

8,145kg

D5G

67kW

XL

8,905kg

LGP

9,255kg

100 가 가

가

가

가

1)

C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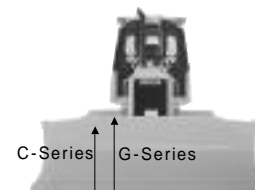
A/C

2)

Sensing

3)

13-15% + capacity



4)

| D3G | |
|--------------------|--------------------|
| XL | LGP |
| 1.44m ² | 1.53m ² |
| D4G | |
| XL | LGP |
| 1.92m ² | 1.84m ² |
| D5G | |
| XL | LGP |
| 2.19m ² | 2.34m ² |

250

500

500

1,000

가 2

Load



5)



1. Cab
2. /
3. HD



- 1.
- 2.
3. Disconnect
- 4.

6)

| | D3G | D4G | D5G |
|----------------|---------------------|---------------------|---------------------|
| Flywheel Power | 70hp / 52kw | 80hp / 60kw | 90hp / 67.1kw |
| | 7,768kg | 8,143kg | 9,254kg |
| | 1.53 m ² | 1.84 m ² | 2.34 m ² |
| () | 6 | 7 | 7 |
| Undercarriage | XL, LGP | XL, LGP | XL, LGP |
| | LGP | | |



4

— (/ / mhahn@haein.com)

(plunger) (barrel) 가

가

1

가

(cavitation)

가



1)

(tappet)
(camshaft lobe)

가

가

()

(cavitation erosion)



가

(headless plunger)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50%

가

가

()

가 (tip seat)

가

가 (shock absorber)



2)

(aeration)

(tip)

(atomization)

가



50%

가

가

>>

1. EUI

2.

3.

가. / . / .

4.

가. / . 2-

. / . 1 / .

1)

2)

2

1)

가 2)

가

3)

4)

5.

,



() CAT ()



2

“
.
.”
가

“
.
.”
IMF
8 가

가
가 (, , A/S)

가 가 가
가
가

5 , 1
가

가
2
가

가



가

1

가 300 , 2000 11 1

가 25.7 1 가 2001 1 1 가

40% 72 . 2001 1 1 가

100% 240

312

가 70

3%

3 1 1,000 28

10%

20% 500

12 11

가

3,000 1,000

$[1,000 - (3,000 \times 10\%)] \times 20\% = 140$

140

(3 19.8%) 277,200

(,), (

)

(www.nts.go.kr)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 , , ,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3 2 1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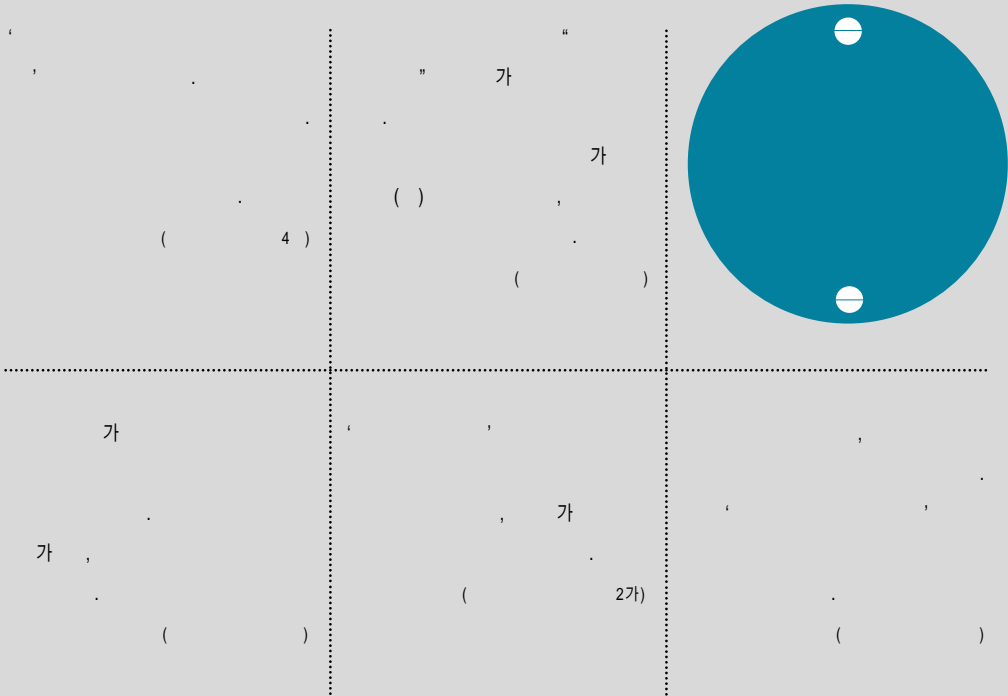
자 H E 세 4

2002년 전기설계사무소 세미나

| | | | |
|------|----|----|-----|
| 2002 | 9 | 13 | |
| 2002 | 9 | 27 | I/R |
| 2002 | 10 | 8 | |



가
: 02-3498-4524 (silee@haein.com)



Business
Manner

